

서울 창의동에서 토막 난 여아의 사체가 발견된다. 하영을 비롯한 범죄행동분석팀은 수사에 동참하려 하지만, 분석팀의 개입을 원치 않는 기동수사대 팀장 윤태구와 갈등을 빚게 된다.

## S#1 Day / IN 복도

태구 : 수사 방법이나 과정을 모르시지 않으면서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 거죠?  
우리 팀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건가?

(하영 : 적어도 정신 이상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)

태구 : 또 선을 넘으시네.  
돕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

(하영 : 도우려는 겁니다.)

태구 : 아니요.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러 온 느낌이죠.  
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경위님은 그쪽 일을 신경 쓰세요.  
정육점 우리도 이미 확인 끝냈어요. 송 경위님만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  
다.

그쪽 팀한테 이 사건이 단지 관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한테는 의무거든요.

(하영 : (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떼려 하다 태구의 말에 가로 막힌다.))

태구 : 교도소의 수감자들 면담 다닌다고 했죠? 이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지 않아요?

강력반 그만두고 포지션 바꾸셨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 
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먼 미래에 범죄 예방하셔야죠.

(하영 : (앞으로 한 발짝 다가오며 말한다.) 말끝마다 가시가 있네요. 우리도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.

어떻게 같은 경찰들끼리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죠?  
저희 팀이 못마땅한 겁니까, 아니면 제가 못마땅한 겁니까?)

태구 : 선 넘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시네요.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접니다. 기수대의 능력 의심하지 마시고, 정말로 돕고 싶으시다면 경위님의 자리에서 본인의 할 일을 하세요.